

강원

평창군시설관리공단, '주니어보드' 제안 '금요 시간적금제' 시범 운영

월~목 30분씩 모아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... 24일부터
2주 단위로 3회 운영 ... 중간점검 후 연말까지 연장

이달수 기자 (jump68@newdaily.co.kr)

기사입력 2026-08-23 14:23:06



▲ 평창군시설관리공단. ©평창군시설관리공단

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일부 근무자들은 월~목요일에 30분 조기 출근하고 금요일에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유연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.

23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(이사장 최순철)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'금요 시간적금제'를 시범 운영한다. 청년 직원 협의체인 '주니어보드'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.

공단은 10월 2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회차별 2주 단위로 제도를 운영한다. 참여 대상은 일반직과 교대 근무가 없고 업무 공백 우려가 없는 일부 시설 근무자이며, 팀별 1명 이내에서 신청을 받는다.

공단은 3회차 운영 종료 후 운영 결과와 직원 의견을 점검해 운영기준을 보완하고,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을 거쳐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.

최순철 이사장은 "운영 요건부터 서비스 공백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해 직원과 이용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다"고 말했다.



▲ 주니어보드 회의 모습. ©평창군시설관리공단

한편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주니어보드는 청년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과 혁신 과제를 발굴·제안하는 직원 참여 기구이다.

이 기사 주소

<https://gw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26/08/23/2026082300061.html>



Copyright © NewDaily All rights reserved.